현불 논단

배우고 가르치기 어렵다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출가 초기, 후배 강의 기회 얻어
1시간 강의 위해 며칠 간 준비해

10년 지나서 행자 기본교육 담당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음을 절감
매일 매일이 이해와 인내의 과정

후학이 바로 알고 고쳐주면 '감동'
작은 '배움과 가르침'도 쉽지 않아
갑갑했을 어른 스님께 참회드린다

글의 제목을 정하며 문득 원효 스님과 사복의 일화가 떠올랐다. 사복의 어머니 장례를 지내며 원효 스님은 "태어나지 말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라.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라고 법문을 하니 사복이 법문이 번잡하니 간결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이에 원효 스님은 "나고 죽지 말라. 괴롭다"라고 법문을 고쳤다고 한다. 그래서 본래 '제대로 배우기 쉽지 않고, 잘 가르치기 또한 어렵다' 라고 생각한 제목을 고쳐 쓰게 되었다.

나는 수계 받은 다음해부터 본사의 후배 스님들에게 강의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고교와 대학시절 불교학생회와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인연으로 당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무 스님으로부터 새로 수계를 받는 스님들에게 청년포교에 대한 강의시간을 배정받았던 것이다. 1시간 남짓한 강의를 위해서 며칠을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이후 출가의 시간이 10여년이 지나고 본사 교무소임을 맡아서 4년 가까운 시간동안 200명에 이르는 행자들의 기본교육을 담당했다. 초발심자경문과 염불의식을 중심으로 6개월 정도의 행자기간동안 평생 살아갈 수행생활의 기초를 잡고 기본을 다지는 교육이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번씩 배울 때의 기억을 되새겨 보고, 교재와 자료를 뒤적이며 거듭해서 읽고 생각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꿈속에서 조차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었다. 누구를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뼛속깊이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무아미타불' 한 곡조 염불을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은 일체의 생각을 접어두고 오롯하게 그 곡조에 전념해야 그 제대로 된 곡조를 익힐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처음, 열에 한 두 명도 따라하지 못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좌절했는지 모른다. 또 하루 서 너 줄 정도 읽고 해석하고 암기하는 한문본 초발심자경문 공부도 생각대로 성취가 따르지 못했다. 매일매일 기다리고 이해하며 인내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초이고 기본인 까닭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부들이라 감당하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상좌 하나가 지옥 하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자 한 명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바로 '지옥' 과 다름없는 고생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그 때 같이 공부하며 출가자의 기본을 다지던 스님들이 이제는 20년도 더 지난 중견 승려들이 되었다. 다들 원만하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그 스님들이 산중의 후배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그런 것일까! 먼저 지나온 사람이 보기에 뒤에 오는 사람은 늘 무언가 허술한 구석이 보이곤 한다. 그렇다고 직접 나서서 가르치기엔 때가 아니다. 그냥 외면하자니 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몸으로 행동으로 열심히 보여주려고 애써본다. 흔히 하는 말처럼 '티 나지 않는' 경계에서 말없는 가르침을 전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때론 효과가 있다. 고맙고 감사하다. 보아주고 알아주어서 그리고 바로 이해하고 고쳐 주어서.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도 있다. 그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도 안 되면 방법이 없다. 결국 말을 해서 가르친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작은 '배움과 가르침' 이 정말 쉽지 않다.

둔한 제자들을 가르치며 속이 타고 갑갑했을 어른 스님들께 진심으로 참회를 드린다. 속 썩여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이타적 대비심으로 설법을

〈전생담(자타카)〉에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보살행을 실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시비왕이 비둘기의 무게만큼 자신의 허벅지살을 떼어 준 이야기' 는 감동적이다.

시비왕(尸毘王)은 왕위에 오르자 백성을 위하여 보시를 하였다. 재물의 보시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기로 결심하였다. 불법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시비왕의 자비심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나운 매로 변하여 비둘기를 쫓아 시비왕의 왕궁에 들어갔다.

매가 왕궁에 숨은 비둘기를 내놓으라고 시비왕에게 요구하자 왕은 거절한다. 매는 비둘기의 고기와 피를 먹지 않으면 자기의 새끼들이 굶어 죽으니 숨은 비둘기를 내놓든지, 왕의 생살을 비둘기 무게만큼 저울에 달아서 내놓으라고 생떼를 썼다. 시비왕은 저울 한 쪽에 비둘기를 달고, 다른 한 쪽에 자신의 살점을 달아 같은 무게만큼 매에게 주었다.

시비왕은 한 마리의 비둘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 매에게 보시 공양을 하였다. 새끼를 낳고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 먹이가 되어 주었던 석가모니가 전생에 행했던 사신(捨身)공양의 예화와 같은 이야기이다.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사상과 육바라밀(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이 설법의 주제였다. 대승경전인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을 강조하는데 비하여, 초기불교경전에서는 보시와 인욕사상이 강조되어 설해져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자체가 보시의 일생이었기 때문이다.

자비심은 보시를 통해서 중생구제의 자애로운 마음이 세상에 드러난다. 초기불교에서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를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것이 제일 목표였기 때문에 구도자의 수행덕목에 보시가 빠져 있고, 대승불교에서는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이상적인 수행상이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으뜸으로 육바라밀이 강조되었다.

보시 가운데에서 이웃에게 경전의 한 구절, 사구게를 설해주는 법보시인 설법이 가장 큰 공덕이 있다. 육바라밀은 피안에 건너가는 용선(龍船)이고, 불성이 현상세계로 드러나 정토를 구현하는 연장이다.

법사는 자리적인 소승법 보다는 이타적인 대승법으로 설법해야 한다. 이기적인 소승법은 세상을 구제할 수가 없다. 자신의 이익과 수행만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종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해서 고통 받는 사람을 구제하여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다.

석가모니는 45년 동안 중생을 위하여 끝없는 설법으로 교화했고, 육바라밀을 몸소 실천하였다. 법사는 설법보살로서 현실생활 속에서 육바라밀을 설법해야 한다.

만해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법사의 마음자세를 대승 보살심을 바탕으로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열정이고, 둘째는 중생을 사랑하는 자애심이고, 셋째는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참는 인욕심이다."

법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중생에 대한 대비심으로 설법한다. 부처님은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법하셨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코로나19 방역에 최선 다해야

일부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다. 연일 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일부 확진 개신교인들은 병원에서 탈출하는 등 기행도 일삼고 있다.

정부와 방역기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8일 담화를 통해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다시 선제적 방역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18일 전국 사찰에 긴급 방역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8월 30일까지 서울 · 경기도 · 부산 지역 사찰들은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법회 봉행 시 동참 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하며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일선 사찰들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초하루법회를 취소했으며, 백중의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웅전에는 50명 이내 기도동참을 위한 고정형 좌복도 설치했다.

서울 불광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 내 동시간 인원을 50명 이내로 유지하고 예불 외 행사와 모임을 제한하는 등 긴급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불교계의 방역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올해 초부터 화제였다. 종교 중 유일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아차' 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게 전염병의 특징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찰과 불자 개인의 방역에 힘써야 한다.

아신 빤딧짜 스님, 결자해지 필요

〈結者解之〉

미얀마 출신 아신 빤딧짜 스님의 성범계 사태가 불교계에 남긴 상처가 크다. 本紙 보도 이후 한국과 미얀마 양국 불자들 사이에서 사태에 대한 파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테라와다 불교 수행자들의 충격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에 귀의한 불자들의 상당수가 스님들의 철저한 지계의식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불자들의 충격도 크다. 불교문화권에서 살아온 미얀마인들에게 있어 스님의 성범계는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그야말로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신 빤딧짜 스님 사태는 분명 개인의 범계다. 그럼에도 충격이 적지 않은 것은 첫 범계 이후에도 비구로서 삶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범계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미얀마 승단을 넘어 테라와다 불교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비구의 성행위는 즉각 승단에서 추방돼 다시 테라와다 불교 승려로 출가할 수 없는 중대한 범계다. 아신 빤딧짜 스님이 한국과 미얀마 양국 불교계에 공개참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담마야나 선원 일부 관계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불교계에 널리 번져버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명확하고 공개적인 참회를 통해 사태가 마무리돼야만, 재발을 막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공식입장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스님에 대한 편견의 시선이나 테라와다 불교의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우려도 높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만큼 깨어있는 불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 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